

‘미리 보는 아카데미’ 화제작 열전

3월5일 시상식 앞두고 개봉일 확정

최다 후보작 ‘셰이프 오브 워터’ 22일 상영

CGV 중영작 등 19편 기획전

오는 3월 5일(한국시각) 열리는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후보에 오른 화제작들이 속속 관람객 맛을 채비를 하고 있다. 후보작들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영화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다 부문 후보작인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을 시작으로 개봉 일정을 확정된 영화들도 늘고 있다.

특히 CGV아트하우스는 후보작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2018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획전에서는 상영 예정작 뿐 아니라 이미 상영이 끝난 화제작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광주주극장에서는 ‘러빙 빈센트’(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작품상 후보)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2일 공식 개봉하는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은 이번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등 가장 많은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연구센터의 비밀 지하 실험실에 들어온 괴생명체와 이곳에서 일하는 언어 장애인 청소년 엘리아저의 특별한 사랑을 그린 판

타지 영화로 이미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골든 글로브 감독상 등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28일 개봉하는 ‘더 포스트’는 개인 통산 10번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스티버그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1971년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베트남전 발발에 개입했다는 국방부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설명이 필요없는 배우 메릴 스트립이 워싱턴 포스트 최초의 여성 발행인 역을, 톰 헹크스가 편집국장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음악은 존 윌리엄스다.

3월 8일 개봉하는 ‘팬텀 스레드’는 1950년대 런던의 유명 디자이너 레이놀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링컨’, ‘데어 윌 비 블러드’, ‘나의 원발’ 등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3차례 수상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인공 역을 맡아 통산 4번째 남우주연상에 도전한다. 왕실과 사교계의 드레스를 만드는 의상실 우드록의 디자이너 ‘레이놀즈’와 인생 최고의 뮤즈이자 유일한 연인이 된 ‘알마’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같은 날 개봉하는 ‘아이, 토냐’는 미국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킨 피겨 스케이팅 선수 토냐 하딩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로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3월 15일 개봉을 앞둔 ‘쓰리 빌보드’는 딸을 죽인

살인범을 찾기 위해 대형 광고판에 도발적인 광고를 실어 메시지를 전하는 엄마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 7개 후보에 올랐으며 골든글로브에서 최고 화제작 ‘셰이프 오브 워터’를 제치고 작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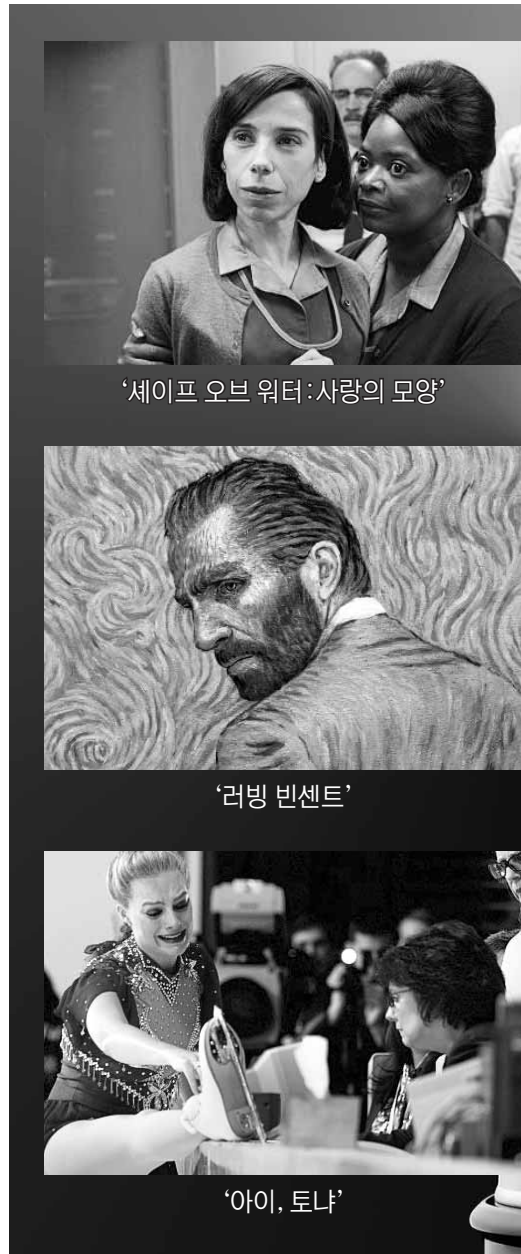
CGV 아트하우스 ‘2018 아카데미 기획전’에서는 오는 3월 21일까지 19편의 후보작을 순차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특히 상영이 끝난 화제작 관람을 놓쳤다면 이 기획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딩게르크’(작품상 등 8개 부문)는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출하기 위한 당시 사상 최대의 탈출 작전을 다룬 실화로 개봉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역시 덩케르크 작전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게리 올드만이 처칠로 변신, 명연기를 보여준 ‘다크리스트 어워’, SF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블레이드 러너 2049’, 휴 잭맨의 연기가 돋보인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한편, 미국 LA의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내에서는 채널CGV에서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독점 생중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윤택이 성폭력...” 잇단 고백...연극계 ‘미투’ 확산

수사촉구 국민청원 운동도

연출가 이윤택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연극계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바람이 문학계를 거쳐 연극계로 옮겨붙은 이후, 그 불똥이 어디로 튀기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윤택 연출가로부터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과거 연희단거리퍼에서 활동했다는 A씨는 지난 17일 연극·뮤지컬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밀양과 부산에서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었다.

A씨는 “저라는 피해자 이후에도 전혀 반성이 없이 십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폭로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면서 이윤택 연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연희단거리퍼 옛 단원들의 ‘미투’ 고백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폭로에 그동안 연희단거리퍼를 통해 ‘간접사과’했던 이윤택 연출은 19일 직접 공개석상에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출가 이윤택

그러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될 조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윤택 연출의 성폭력 사건과 이윤택 연출과 관련된 연극단체에 대해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밤 시작된 청원에는 18일 오전 11시30분 현재 8200여명이 동의했다.

연극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는 극작가이기도 한 이윤택 연출을 회원에서 제명했다. 극작가협회 집행부는 “(이윤택이) 시대적 분위기와 연극계에 끼친 업적을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연극계의 ‘미투’ 운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연극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며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출가 김재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희단거리퍼의 사과문에 대해 “이 ‘폭력사건’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결여되었고 어떠한 진상조사와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연출은 이어 “미투운동의 언어만큼 고통스럽지만 진정성 있는 언어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투운동은 고백의 언어를 넘어서 법률의 언어로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내면의 여성성으로 풀어낸 일상 소재들

최양숙 시조시인 첫 작품집 ‘활짝, 피었습니다만’ 출간



한 창작 때문이다. 그러나 최양숙 시인은 일상의 소재를 내면의 여러 화자의 목소리로 풀어내 낯선 감각을 연출한다.

특히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 화자는 정형시의 생명인 운율, 리듬과 결부돼 “여성적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여성 화자의 현재의 삶에 드리워진 다양한 명암을 응시한다.

“수시로 혈압 재고/ 맥박 수 체크하고// 이완제 맞고서야 아슬아슬 풀리는 봄// 인간에 만듦데 흘씨/ 후후 불어 만나는 봄// 그대는 어디만큼/ 피어 오고 있나요// 거리마다 수만 송

이/ 속삭이며 지나가고// 나 오늘/ 견디다 못해/ 활짝 피었습니다만.”(‘활짝 피었습니다’) 표제시 ‘활짝 피었습니다’는 시인의 시적 지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련된 감각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은 기존의 시조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시집 제목 ‘활짝, 피었습니다만’은 작품 ‘활짝 피었습니다’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여성적 삶의 주제성, 여성성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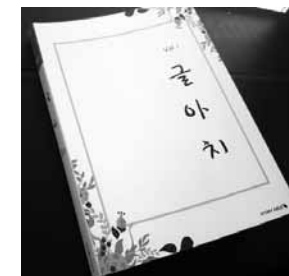
이승희 시조시인은 해설에서 “최 시인의 첫 시집은 여성 서사의 한 국면을 보게 한다”며 “오늘의 현대시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성의 몸의 글쓰기가 어떻게 여성의 삶에 대한 주제적 글쓰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 되는 계기를 열어주는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최양숙 시인은 조선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수료했으며 1999년 ‘열린시조’ 봄호로 등단했다. 2015년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시조문학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공대생들이 기획한 문예지

전남대 ‘글아치’ 182편 수록



전남대 학생문예지 제작팀 ‘스토리에 이블’이 최근 문예 작품 공모전을 진행, 응모작을 실은 문예지 ‘글아치’(사진)를 발간했다.

스토리에이블 팀이 진행한 제1회 학생문예지 공모전은 지난해 전남대가 학생문화 융성을 위해 추진한 ‘학생문화 PT경진대회’ 선정 프로그램으로 대학본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특히 이번 문예지 발간은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최류빈·박상준 학생들이 구성하고 기획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인으로 등단해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한 경력이 있는 최류빈 학생과 문학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있는 박상준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2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응모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대를 비롯 (재)광주문화재단, 광주수필문학회, 시 전문지 ‘포엠포엠’, (주)커넥트 워크가 후원해 전문성을 더했다. 문의 062-530-104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